

국 어

문 1. 밑줄 친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⑦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그래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육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수렵을 했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의 동물로 육질을 섭취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먹는다. 그러나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보면,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서유럽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 ②

* 서유럽의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주어 필수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 <나타내다>는 <~을(목적어)>, <~에게(필수부사어)>, ~으로(필수부사어)>를 요하는 3자리 서술어이다.

예) 주인은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기색을 나타냈다.

주어 필수부사어 목적어

음악가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부사어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농경(農耕)'은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의 의미를 갖는다.

→ 따라서 <농경이 발달하였다.>, <농경 생활을 해 왔다.>

혹은, <농사를 지어 왔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③ 힌두교도들 역시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주어 (X) 목적어 서술어

'느끼다'는 타동사로 일반적으로 <~을(목적어)>를 취하며, 의미상 혐오감을 느낀 대상을 표시해야 하므로 <서유럽 사람들에게>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유정명사 + 에게).

④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주어 부사어 (X) 서술어

'느끼다'는 타동사로 <~을(목적어)>를 취한다. 따라서 서술어 '느끼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거부감을>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 <식생활에>는 '무정명사 + 에'의 바른 표현이다.

문 2.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① 글의 서론 부분
- ② 글의 결론 부분
- ③ 글의 본론 부분
- ④ 예를 드는 부분

정답 : ①

* 서론은 글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본론에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 주어야 한다. 서론은 대체로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문제의 실마리를 내용으로 '화제'를 도입하고,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의 제기로 '논제'를 제시한다.

→ 주어진 지문은 의문의 방식(~ 것인가?, ~ 반응하는가?)을 통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며 '눈빛, 표정, 자세 등'을 통해 '화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탐구하겠다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는 **글의 서론**에 해당한다.

문 3.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에게 진짜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어쩌면 8.15 광복 이라고나 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국의 광복은 우선 내 조부를 몰락시켰다. 그의 위엄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헌 짚신짝처럼 짓밟혔고, 근동 세 마을을 먹여 살리던 그 많던 가산들도 온통 거털이 나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에는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며 하인배들에게 급기야는 가혹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했던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날의 수모를 삭히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의 상여 메는 것조차 유언으로 거부했던 터였다.

- 이동하, '파편'중에서-

- ① 곡학아세 (曲學阿世)
② 면종복배 (面從腹背)
③ 부화뇌동 (附和雷同)
④ 허장성세 (虛弄聲勢)

정답 : ②

'전에는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
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

→ '()'이기는 할지언정'은 소작인들이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
들지 못하던' 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은 아니라는 단서가 되고,
소작인들의 '드러난 행동과 마음이 달랐다'는 의미의 면중복배(面從
腹背)가 어울린다는 힌트가 된다.

→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참고) 르지언정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유래! 상래! 통래! 혜원국어!!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뒤 절을 강하게 시인하기 위하여 뒤 절의 일과는 대립적인 앞 절의 일을 시인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르 망정’보다 다소 강한 느낌이 있다.

예)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문 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 살립니다.
- ② 우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벌므로
- ③ 그는 땀에 전 작업복을 갈아 입었다. → 절은
- ④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읍시다. → 밍시다.

정답 : ③

문제는 모두 기본형이 어간에 'ㄹ'이 붙는다(살다, 벌다, 절다, 밀다). 어간에 'ㄹ'이 들어가는 용언은 'ㄴ, ㄹ(ㄹ수록), ㅂ, 시, 오'의 **어미와 만날 때 어간의 'ㄹ'이 탈락**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따라서 <절(어간) + ㄴ(관형형 어미) → **전**>으로 표기해야 바르다.

<확인하기>

- ① 살(어간) + ㄹ니다(어미) / ② 벌(어간) + ㅂ므로(어미) - 'ㄴ, ㄹ(ㄹ수록), ㅂ, 시, 오'의 어미가 아니므로 앞의 어간의 'ㄹ'이 탈락되지 않는다. 더불어 매개모음(으)을 취하지 않는다.
- ④ 밀(어간) + ㅂ시다(어미) - 'ㅂ'과 만나 앞의 어간의 'ㄹ'이 탈락되어 <밍시다>의 형태로 활용한다.

문 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다.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매가 사나워지며 이를 꼭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①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 ②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
- ③ 탈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사례
- ④ 동물과 인간의 분노 감정의 차이

정답 : ②

→ tip!! 비문학 단락의 문제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주어진 지문의 첫 문장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 분노가 동물과 사람에게 각각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① 동물의 경우, ② 사람의 경우'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주지는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가 가장 적합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공격을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러한 분노가 언제 일어나게 되는 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③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의 개념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실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동물과 인간의 분노 시 '감정의 차이'보다는 분노 시 행동의 공통점에 주안점을 두고 언급하고 있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중국에서 ‘강(江)’이 들어오더니 ‘가람’을 물리쳤고 ‘되’가 있는데도 굳이 ‘산(山)’이 그 자리에 올라 앉고 말았다.(중략)

원래 ‘외래어’란, 우리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외국말에서 빌려다 쓰다가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학교, 선생, 비행기, 가족계획’ 등등의 무수한 한자어가 그것이며, ‘버스, 빌딩, 커피, 뉴스’ 등등 서양에서 들여온 외국어가 그것이다.

-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중에서 -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②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뵈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정답 : ②

우리 '토박이말'이 쓰이던 자리를 '한자어'와 '외국어'가 들어와 차지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사물)이 본디부터 있던 사람(사물)을 내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의미의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뵈다**.'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소문은 놀랍게 멀리 빨리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 無足之言 飛于千里 (무족지언 비우천리)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비밀은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말조심을 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문 7.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써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 ②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대청구조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③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원 세조 등장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 ④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정답 : ④

보이게(보(어간) + 이(피동 접사) + 게(어미, = 게끔)) = 보이도록
→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주어 <주어2 서술어2>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절
→ 부사절을 안은 문장

<오답 피하기>

- ① '로써'는 <재료, 원료, 수단, 도구, 썸의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주어진 문장은 '두 집이 최근에 친하게 지낸 것을 가지고(그것을 수단으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상한 문맥이 된다. 따라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격조사' '로'로 쓰는 것이 바르다.
→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 그전에는 사이가 나빴다.
- ② '라고'는 '하고'와 함께 직접 인용에 쓰는 조사다. 주어진 문장은 큰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은 '간접 인용'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의 조사 '고'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③ '제시되다'는 <~에/~에게>를 취한다. '위에 제시된'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 위에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문 8.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학문은 나름대로 고유한 대상영역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이며,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물론 그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이란 일정 대상에 관한 보편적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술(記述)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조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성만이 학문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학문은 사회로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낱말은 ()입니다. 결국 학문이 어떤 대상의 기술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술하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지(知)에 대한 설명도 같은 지(知)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절차를 밟아 그 기술과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하고 반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① 전문성

- ② 자의성
- ③ 정체성
- ④ 보편성

정답 : ④

주어진 글은 모든 학문이 고유 영역이 있으며, 그것은 학문이라는 대상에 '보편적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사회로 확대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뒤이어 그 '보편적인' 성격에 관해 상술하고 있는 글이다. ()의 실마리는 문장의 앞, 뒤에 제시되고 있는데 '기술하는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그렇다.' 등이 '보편성'임을 찾는 단서가 된다.

* 보편성(普遍性) -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오답 피하기>

- ① 전문성(專門性) -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
- ② 자의성(恣意性) -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 ③ 정체성(正體性)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에이아이텐티티

문 9. 다음을 하나의 단락으로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 나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은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다. ㉡울 겨울 주남 저수지에는 약 1만여 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헤엄치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보통 때엔 목을 S자로 굽히지만, 경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한 곳으로 모여든다. ㉣주남 저수지에는 왜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며, 희귀종으로 알려진 재두루미도 12마리나 날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조가 한 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과 깃털 사이에 넣고 잠을 자기도 하고, 긴 목을 물 속 깊숙이 넣고 수초의 뿌리를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 ㉥날개를 무겁게 퍼덕거리며 발로 차듯 뛰어가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 ① (㉡)에는 ‘경계할 만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줘야겠어.
- ② (㉢)은 단락 전체의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해야 되겠어.
- ③ (㉤)은 (㉡)과 의미가 중복되니까 빼는 게 좋겠어.
- ④ 백조가 저수지를 떠난 뒤의 풍경을 묘사한 문장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어.

정답 : ②

주어진 글은 주남 저수지에 모여든 <백조>들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는 단락이므로 '왜가리, 큰기러기, 재두루미'에 대한 언급은 단락 전체의 통일성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르다.

<오답 피하기>

- ① '경계 대상'이 초점이 아니라 목의 모양이 초점이므로 대상을 밝히지 않아도 의미상 무리 없다.
- ③ (㉤)은 (㉡)의 묘사로 의미의 중복이라기보다 상술에 해당한다.
- ④ 저수지에 모여든 백조의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는 단락이므로 백조가 떠난 풍경은 글 전체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 10.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秦) 나라 재상인 상앙(商鞅)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앙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榜文)을 붙였지요. “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백금(百金)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萬金)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밀질 것도 없었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① 신뢰의 중요성
- ② 부국강병의 가치
- ③ 우민화 정책의 폐해
- ④ 명분을 내세운 정치의 효과

정답 : ①

주어진 글은 나라의 기강을 걱정하던 진나라 재상 상앙이 방문(榜文)을 붙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이야기를 통해 부국강병의 기초가 <신용, 곧 신뢰>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글의 중심생각은 <신뢰의 중요성>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확인하기>

- ② 부국강병(富國強兵) -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 또는 그 나라나 군대.
- ③ 우민화(愚民化) - 어리석은 백성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만들.
- ④ 명분(名分) - ①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 ② 일을 피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문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호 Muko
- ② 극락전 Geuknakjeon
- ③ 경포대 Gyeongphodae
- ④ 평창 Pyeongchang

정답 : ④

*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평창은 'Pyeongchang'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체언의 축약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글자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
→ 목호 Mukho
- ② 로마자 표기 시 자음동화는 반영하지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락전>으로 표기해야 한다.
→ 극락전 Geungnakjeon
- ③ 경포대는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다.
→ Gyeongpodae
- * 불필요한 h가 사용되었다.

문 12. 밑줄 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민주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지양(止揚)한다.
- ②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도매급(都賣級)으로 욕을 먹었다.
- ③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호도(糊塗)하려고 한다.
- ④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享年)80세이신데도 정정하시다.

정답 : ③

* 호도(糊塗) -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호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따라서 그 회사가 사건의 진상을 호지부지 덮어 버리려 했으므로 '호도(糊塗)'의 쓰임이 적절하다.

- ① 지양(止揚) -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
→ 주어진 문장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므로 '지향(志向)'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 지향(志向)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함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② 도매급(都買及)
우리말에 도매급이라는 표현은 없다.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다.
→ 주어진 문맥에서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의미하므로 '도매금(都賣金)'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 * 도매금(都賣金) - ① 도매가격. ②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향년(享年)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쓴다.
→ 살아계신 할아버지의 연세를 향년(享年)으로 표현할 수 없다.
→ '올해'를 의미하는 '당년(當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어휘 확인하기>

- * 당년(當年) [명사]
- ① 일이 있는 바로 그 해.
예) 그는 졸업하는 당년에 사법 고시에 합격하였다.
- ② 올해.
예) 당년 신수/그는 당년 오십일 세이다.
- ③ (('이십', '삼십', '사십' 따위 십 단위의 수 뒤에 쓰여))그 수에 해당하는 나이나 연대(年代)를 이르는 말.
예) 구십 당년이건만 정정하시다./내 오십 당년에 저런 꼴은 난생 처음이오.

문 13. 외래어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이팅
- ② 슈퍼마켓
- ③ 꼬낙
- ④ 팸플릿

정답 : ③

'코낙'으로 표기한다.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각 언어의 한글 대응 시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 아틀리에(아뜰리에×), 오사카(오사까×), 카페(까페×), 후쿠오카(후꾸오까×), 코낙(꼬낙×), 도쿄(도쿄×), 피에로(삐에로×), 콩트(꽁트×)
* 예외도 있다.

유쾌! 상쾌! 통쾌! 혜원국어!!

→ '빠라(bill)' '껌(gum)' '빨치산(러, partizan)

→ 주의하기!! '버스' '가스' '가운' '땀'(O) 등
각각 '빠스' '까스' '까운' '땸'(X)

문 14.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 ②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 ③ 그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 ④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렀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정답 : ②

* 기본형이 '들르다'이므로 '들~~르~~ + 시 + 었 + 다 = 들르셨다'로 바르게 활용한 표현이다.

- 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는 '무~~릅~~쓰다'로 표기한다.
 - ③ '감정을 나타내다.'의 표현은 '떠다'를 기본형으로 하므로 '떠 + 니'의 '떠~~니~~'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 ④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의 표현은 '벌이다'가 적절하므로 일이나 사업은 '벌이다'로 표기하며 주어진 문장 역시 사업을 벌~~었~~다가 실패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 * 벌리다 - '물리'적 간격'을 '멀게 하다'의 의미.

<어휘 확인하기>

* 떠다[동사]

- ① 【...에 ...을】 떠나 끈 따위를 두른다.

예)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에 띠를 띠다.

- ② 【...을】 물건을 몸에 지닌다.

예) 추천서를 띠고 회사를 찾아가라.

- ③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닌다.

예) 중대한 임무를 띠다.

- ④ 빗줄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예) 붉은빛을 띤 장미

- 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예) 노기를 띤 얼굴 /얼굴에 미소를 띠다.

- ⑥ 어떤 성질을 가지다.

예) 보수적 성격을 띠다/일에 전문성을 띠다.

* 벌이다[동사]

- ① 【...을】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예)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 ②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예) 장기판을 벌이다. /투전판을 벌이다.

- ③ 【...에 ...을】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예)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고 공부를 한다.

- ④ 가게를 차리다.

예)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

- ⑤ 【(…과)…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예)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전쟁을 벌이다.

문 15.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고향 첫길로 답가서 그런지, 이번 김치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 ②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 ③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 ④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궜 두었다.

정답 : ④

우리말 어간에 'ㅡ'가 들어가는 용언의 경우 대개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한다. 기본형이 <잠그다>이므로 <잠그 + 어 = 잠가>로 활용하는 것이 바르다.

<활용 사례>

잠그다 - 잠그고 - 잠가(잠그 + 아) - 잠갔다 - 잠가라
답그다 - 답그지 - 답가(답그 + 아) - 답갔다 - 답가라
노느다 - 노느고 - 노나(노느 + 아) - 노났다 - 노나라
치르다 - 치르면 - 치러(치르 + 어) - 치렀다 - 치러라
들르다 - 들르고 - 들러(들르 + 어) - 들렀다 - 들러라

<오답 피하기>

- ① 기본형이 <답그다>이므로 <답그다 + 아서 = 답~~가~~서>로 활용한다.

- ② 상큼하다 + 아/어지다(여지다) = 상큼~~해~~지다./상큼~~하~~여지다.

'하다'는 연결어미 '아/어' 대신 '여'가 붙는 불규칙 용언으로 연결어미 '아/어지다'와의 결합이 '-해지다/-하여지다'로 활용된다.

* '해 = 하여'

- ③ '상기다'는 <① 물건의 사이가 조금 뜨다. ② 반복되는 횟수나 도수(度數)가 조금 뜨다. ③ 관계가 깊지 않고 조금 서먹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 따라서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사이가 상기게 되었다.'라고 활용할 수 있다.

문 16.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四千年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 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시가의 원형을 이루고 다시 이 집단적 가요는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 ② 그리고 - 왜냐하면 - 그러므로
- ③ 그러므로 - 그리고 - 왜냐하면
- ④ 왜냐하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래! 상래! 통래! 혜원국어!!

정답 : ①

첫 번째 접속사의 힌트는 바로 다음 문장의 '- 때문이다.'에 있다.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 적절하다. 따라서 ②, ③을 제외하고 답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접속사는 앞, 뒤 문맥상 앞의 시가 문학에서 뒤의 서정문학이 역접의 '그러나'보다 양 문맥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그리고'가 더 적절하다. 마지막의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혹은 거리끼지 아니하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앞의 모든 문맥을 정리하는 결과의 '그러므로'의 사용이 적절하다.

* tip!! 접속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문맥에 주어진 단서를 잘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주어진 선택지를 잘 활용해서 풀어야 한다.

문 17.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법 저촉(抵觸)(→해당) 여부를 검토하다.
- ② 국력 배양에 가일층(加一層)(→한층 더) 매진하다.
- ③ 그들은 대절(貸切)(→전세) 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 ④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買占)을(→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답 : ①

'저촉(抵觸)'은 <①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②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당'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을 의미하는 '위배(違背)/위반(違反)' 정도의 어휘가 적절하다.

<어휘 확인하기>

- ② 가일층(加一層) - 정도 따위가 한층 더함. **한층 더.**
- ③ 대절(貸切) -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만 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하는 일. '전세(專賃)'로 순화
- ④ 매점(買占) -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임. '사재기'로 순화.

문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때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 ②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 ③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 ④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 : ③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이 오히려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때로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주어진 단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 확인하기>

- ① 두 번째 문장(리처드 ~ 것이다.).
→ 이 글의 요지이기도 하다.
- ② 여섯 번째 문장(그것은 ~ 준다.).
- ④ 마지막 문장(인간의 때문이다.).

문 19.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체로 술을 받친다.
- ② 요즘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 ③ 이것으로 축사를 갈음합니다.
- ④ 고무줄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정답 : ①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의 강세 표현은 '받치다'가 바르다. 따라서 '체로 술을 받친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어휘 확인하기>

- ② '붙다'의 사동사로 '붙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 붙이다[동사]

우표를 붙이다./ 불을 붙이다./ 이유(조건)을 붙이다./ 주석을 붙이다./ 감시원을 붙이다./ 땅에 뿌리를 붙이다.

- ③ 갈음하다 - 【...을 ...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 ④ 늘이다 - 길이를 늘게 하다.

문 20.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인권문제, 복지문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이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 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 (나) 이제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만 다문화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 (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라)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 ① (라) - (나) - (다) - (가)
- ② (다) - (나) - (라) - (가)
- ③ (라) - (다) - (나) - (가)
- ④ (다) - (가) - (라) - (나)

정답 : ④

* tip!! 순서 찾기 문제는 선택지가 단서다.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보고 풀어야 한다. 선택지는 (다)와 (라)를 먼저 읽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는 다문화 정책 두 가지를 언급하며 ① 이민자의 선별 입국과 ② 이민자 정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라)는 이민자 정착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글의 순서에 있어서 우선이다. 더불어 (다)의 뒤에는 ①에 해당하는 선별 입국과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가)가 가장 적당하다. 이미 정답은 결정되었지만, 뒤이어 두 번째 정책과 연결되는 (라)와 포괄적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가)의 연결이 글의 내용상 바른 선택임이 확인된다.